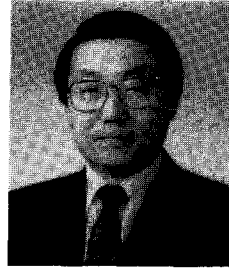


안전의식 유감



김성찬 <설비기술연구소 소장>

안전의식 결여가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명당 31.7명), 간암 사망률(23.8명), 결핵 사망률(12.6명). 이 통계 숫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지난 2월 7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이다. 광주 도시가스 탱크 연쇄폭발, 여의도 지하철공사장 지반붕괴 등, 연일 대형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또한 건설부 통계에 의하면 90년도 말 건설업의 재해자 수는 전년대비 20.3% 증가,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46.0%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재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1. 직접 원인

- 1) 공사물량 폭증
- 2) 건설기능공 부족
- 3) 계약공기 준수를 위한 무리한 작업 강행

2. 간접 원인

- 1)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관리 전담조직 및 운영 미흡
- 2) 경영층의 안전의식 및 법준수 의지 부족
- 3)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기피
- 4) 근로자의 소속감 결여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보면 정확한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외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우선 환자를 진찰한다. 환자가 무슨 병으로 앓고 있는지 알아야 그 병에 적합한 투약을 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배가 아픈 경우 소화 장애로 복통을 느낄 수도 있고 복막염이나 맹장

염으로 아플 수도 있다. 소화가 안될 때는 소화제를 써야 하고 맹장염에 걸렸을 때는 수술을 해야 한다. 의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선 정확한 병명을 찾아 내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러면 건설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전에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한국 사람의 안전의식결여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희박한 것이다.

지난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874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숫자는 하루 평균 35.3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이며, 그 원인은 교통 법규나 운전시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용감무쌍하게 질주하는 운전자들의 행패에 기인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과속, 편도 일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추월, 교통 법규 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의식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데모대 학생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온 나라가 떠들석하게 떠들어 대어도 하루에 35명씩 죽어가는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나 하나쯤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 “나 하나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 해서 교통마비가 되지 않겠지” “나 하나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재해가 더 늘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의식 구조, 그것이 문제이다. 국민 모두가 다 “나 하나 썩어야...”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4천만 인구 모두가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적당주의와 요행심리가 재해 발생시켜

우리나라 사람의 안전 의식을 살펴보면 안전확률 80%, 사망확률 20%라고 할 때 나는 80% 중에 속하니까, 안전확률이 사망확률보다 많으니까 죽지 않겠지, 나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단다. 그러나 서구 사람은 그와 반대로 「내가 사망확률 20%에 속할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안전 수칙을 지키고 점검을 하고 또 한다」고 들었다.

또한 우리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결과를 빨리 얻으려는 의식이 강하다고 한다.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일의 과정을 무시해 버린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지켜야 할 여러가지 규칙이 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한 작업이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응분의 과정을 거쳐야만 얻어진다. “베는 석자라도 틀은 틀대로 차려야 한다” “바늘 허리 매어 못쓴다” 라는 속담은 위의 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0시간 일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5시간 일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어딘가 일이 거칠거나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기계를 해체하고 조립할 때도 순서가 있고 문제를 풀 때에도 순서에 따라 계산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종종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과정이나 순서를 무시하고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과정을 단축하고 과정을 빼 먹고 속임수를 쓴다. 또 일을 할 때 덤벙덤벙하고 차근차근하게 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구조가 많은 재해를 발생시킨다고 생각된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은 안전수칙이 너무 많아서, 또는 안전수칙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안전할 텐데 하는 생각에서다. 위험

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면 사전에 조치하고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조심스럽게 작업하면 능히 재해를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회사 관리층의 안전의식도 문제가 된다. 공사현장의 안전장비, 안전시설, 안전교육에 인색한 것이다. 이 안전비는 요행히도 안전사고 없이 지나가면 고스란히 남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건축물의 소방설비는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설마 내집만은 불이 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법규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처리한다. 이러한 요행심리와 적당주의가 문제이다.

안전규칙 준수의 의지 있어야 재해 줄어

건설재해의 예방은, 오직 적당주의와 요행심리를 버리고 원리원칙대로 안전규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건설재해가 많으면 회사의 경비지출이 많아지고, 경비지출이 많아지면 이윤이 줄어 들고, 이윤이 줄어들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료 지출도 많아져 보험률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며 경비지출 과다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위정자는 임기내에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의 독촉 및 과다한 공사의 발주 등을 억제하는 것도 건설재해를 줄이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재해는 안전시공 기술지침서, 안전시공 점검지침이나 규정집등이 없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주의와 요행심리 때문이다. 국민 각자가 안전을 중시하고 안전규칙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의식을 개조하여야만) 재해를 줄일 수 있다.

우리 다같이 의식을 개조합시다. !